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6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얼음 깨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유

교회행사

한 건축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같은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더위와 비바람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힘든 순간에도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58절에서 바울은 장차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사망이 영원히 패배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눈앞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수고의 결과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눔]

1.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나요?

6월

7,14일	풍삼초 이교미 세미나 5기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5-17일	어와나 영어성경학교 EBS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 예비학교 개강
26-28일	더원공동체 여름수련회

7월

4-5일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
5일	상반기 목장모임 방학
5-6일	굿월센터 유학생 수련회
11-12일	더조이/유아부/유치부/초등3부 여름성경학교
24-25일	초등1부 여름성경학교
24-26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27-31일	어와나 티앤티캠프

경배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소식

1. 굿월센터

선교에 진심 진실하게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가 유학생 선교사역을 좀 더 공적으로 재정적으로 원활하고 투명하게 사역하기 위해 '사단법인 굿월센터'로 허가를 받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신천지 및 이단주의

교회 안에 신천지와 이단에 주의 당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교회에는 비밀로 하자는 모임이나 성경공부는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외부의 성경공부나 선교단체 훈련 시에는 교회와 소통하여 이단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고은빈 선교사]

케냐

1. 에나라우 미션 교회 건축과 여전도 회원들이 모두 문맹자들로 문맹 퇴치 교육을 위한 봉사자를 위해
2. 에나라우 미션 스쿨은 올해부터 케냐의 새 교육 시스템에 따라 유치원 2개 학급과 1-6학년까지만 운영이 되는데 부족한 교실과 각 부대시설 건축을 위해, 그리고 자격증을 갖춘 교사 영입을 할 수 있도록.
3. 상급학교 진학자들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장 큰 울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 존 칼빈 -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설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혼은 존재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수많은 증인을 통해 증명합니다. 12절부터 34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십자가도 의미를 잃으며, 모든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9절에서는 장차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50절부터 58절은 그 결론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 부활신앙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50절)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이 몸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52절) 여기서 '변화된다'는 말은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셨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시고, 홀연히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씨앗만 바라보면 아름다운 꽃이나 풍성한 열매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몸은 썩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나눔]

나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나 현실의 한계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 오늘 내가 더욱 신뢰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부활 신앙은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55절)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이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눔]

나는 죽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삶의 절망이나 두려움 앞에서 부활의 소망이 나를 붙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한 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58절) 부활신앙은 단순히 미래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 때문에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 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또한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단순히 교회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흐름 속에서 주의 일이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손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인내도, 복음을 위한 삶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눔]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내 삶에서 더욱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눔

[고린도전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 / 고린도전서 15장 50~58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을 굳게 믿으며, 썩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헛되지 않은 수고

믿음의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